

Anne Mulqueen 3-2014

천주교 신자들에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스런 존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에큐메니칼/초교파적 교육은 재속프란치스코회처럼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에큐메니즘에 관한 문서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구독되지도 않았읍니다.

US Catholic (www.uscatholic.org) 최근호에서 제기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에큐메니즘과 초교파적 대화를 활성화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제가 찾아본 결과 *Sobre el Cielo y la Tierra -On Heaven and Earth*라는 책이 추기경 Jorge Mario Bergoglio 와 Argentine Rabbi 인 Abraham Skorka 공동으로 집필 된 것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부터 번역된 당시 추기경이었던 교황 프란치스코님의 글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관점, 의견 과 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란 상대방을 우선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받아줌으로서 성사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방어태세를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상대를 따뜻하게 맞이 하십시오.

프란치스코교황은 하느님의 선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믿음을 유지함과 동시에 타종교의 믿음을 존중하면, 하느님을 흠송하는데에 있어서 서로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권고(Apostolic Exhortation),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에서 다음과같이 언급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파를 극복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하느님의 자녀들이지만 카톨릭교회와 완전한 일치에는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서도 카톨릭 공통의 보편성”(V)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좀더 신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자신도 순례자들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자신이 의혹과 불신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빛나는하느님의 평화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합동위원들과같이 전국을 돌며 워크샵을 개최하는 동안 프란치스칸들의 협력을 볼수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청하신 기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것을 세상이 믿게하십시오. (요한 17:21) 그리고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사 첫머리에 나왔던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다른 전통적 프란치스칸과 더불어 에큐메니즘과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받은 응답은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의 기사에서 저는 여러분의 단위/지구형제회, 교구 또는 교회에서 교회일치운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좀더 깊이있게, 다른 분은 신중하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대화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여러분의 의견을 Amulqueensfo@gmail.com 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요약된 설문조사 응답 결과입니다. 많은 재속프란치스칸들이 응답해주셨지만 국가형제회의 전체를 대표하는것은 아닙니다.

첫째, 오직 한 형제회에서만 매년 1 회 에큐메니칼 기도와 대화를 바쳤습니다. 대략 응답자의 1/3 은 에큐메니칼-교회일치("E-I")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이거나 Franciscan Action Network 같은 단체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단위형제회/지구형제회, 교구에서 이러한 활동참여는 없었습니다. 또 지역교회에서의 움직임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둘째, 설문조사응답에 의하면 이러한 일치운동에 대한 인식조차 양성과정에서 취급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해석인 unitatis Redintegratio(Christian Unity)와 Nostra Aetate(non-Christian Religions)에 대하여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설문조사응답으로 보면, 교회일치운동은 형제회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니 그렇지않았습니다. 응답자들이 주신 코멘트에는 이러한 에큐메니칼 일치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함께 나눠 볼까합니다.

“...로마전례교회 신자들에게 카톨릭교회내에 다른전례에 대해서도 친숙해질 것을
장려하십시오...그들에게도 교황이 수장인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접촉시 우리는 카톨릭신앙에 대해 충분히 알고 교리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문에 답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부끄러웠으며 이런 일을 주도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쪽으로 더 나아갈수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셋은 New Hampshire 와 Massachusetts 에서 형무소 사역을 하고있습니다. 에큐메니즘과
교회일치운동은 저희들 사역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이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나 우리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통합과 일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는 그들과의 의미있는 나눔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면에 대해 아는 이는 제가 유일할지 모르지만 사도직에 있는 저희 멤버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식료품 창고,식사프로그램, 낙태반대사역, 기아추방 등등)”

“...저는과거 비잔틴 카톨릭이었습니다. 미국서 로마교회는 많이 알지만 동방정교회는알려져있지
않지요. 우리의 많은 친구나 친척들은 티베르강 저편에 있으며 우리와 달리 로마교회와 화합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교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 중 누가 검은
양인가 논쟁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되지요.”

“형제회생활에서 에큐메니칼운동의 중요성을 ‘9’이라고(1 에서 10 중) 평가합니다. 저희 형제회의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운동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위원회나, 모임,
보고서(이상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에서 더 나아가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와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장문의 기사를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글을 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우리들의 대화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며
저희 에큐메니칼 교회일치위원들이 지향해야 할 길을 밝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V 참조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Decree on Ecumenism Unitatis Redintegratio,
no 4)